길리어드, 전남도에 C형간염 치료제 기부

다국적 제약회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가 1억 7000만원 상당의 C형간염 치료제를 전남도에 기부했다. 〈사진〉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는 전남도의 C형간염 퇴치 시범사업으로 발굴한 확진자 중 저소득층(중위소득 100%이내)의 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국내 C형간염 퇴치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치료제를 기부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1987년 미국 벤처기업으로 시작해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비롯한 간염, 에이즈 치료 등 혁신적 의약품을 개발, 2022년 매출액 273억 달러를 기록하고 전 세계 35개국 이상에 진출한 다국적 제약기업이다.

전남 C형간염 환자는 1만 3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치료 시기를 놓쳐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된 경우 질병 부담 비용이 연 279억 원이 소요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수자원공사 영·섬유역관리처, 도랑 정화활동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관리처는 18일 주암댐 상류인 보성군 법화마을에서 'SAVE the 도랑'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영·섬유역관리처는 마을주민들에게 수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사)지역사랑복지협의회, 에코솔루션 협동조합, 법화마을 주민들과 함께 도랑 내 농촌·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정화활동을 진행했다.

또 정화활동 중 빅워크 앱을 활용한 걸음기부 캠페인을 통한 사회공헌활동과 탄소중립활동을 함께 진행했다.

영·섬유역관리처 관계자는 "국민들의 공감대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도랑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리주체가 부재한 강 최상류 도랑의 수질개선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댐 상류 도랑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시도의회의장협 호남·제주권 부회장

서동욱〈사진〉 전남도의회 의장(민주·순천 4)이 지난 16일 강릉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 7차 임시회'에서 제 18대 후반기 호남·제주권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의장으로 구성돼 시·도의회 공동 현안과 각 지자체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지역 간 공동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단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대병원 박광성 교수 세계비뇨의학회 공헌상 수상

전남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박광성 교수가 최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43차 세계비뇨의학회 학술대회 'SIU Awards' 시상식에서 남성 및 여성성기능장애 분야 기초 및 임상연구에 기여한 공로로 세계비뇨의학회 공헌상을 수상했다.

박 교수는 국제성의학회에서 공식학술지인 'Sexual Medicine' 편집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ISSM사무총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여대, 다문화·이주여성 한국어 과정 수료식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평생교육원은 최근 '2023년 지역대학 연계 특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다문화·이주여성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한국어 과정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광주여대 평생교육원은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대학 연계 특화 프로그램 중 다문화·이주여성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사업에 선정돼 광산구 가족센터와 함께 이번 교육을 기획·진행했다. 이번 수료식에는 총 15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5주간 총 10차례에 걸쳐 한국어 교육을 이수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화순전남대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바로알기 캠페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는 최근 '호스피스완화의료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를 주제로 열린 캠페인은 병원 내원객과 입원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바로 알기 퀴즈 룰렛, 호스피스완화의료 후원모금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 여수시 동구보건지소,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서구보건소와 연합 홍보를 비롯해 6권역(광주·전남·제주) 호스피스 전문기관 및 광주시청과 함께하는 공동캠페인 활동도 펼쳐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조선대 안규백 교수 '용접의 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조선대학교 안규백〈사진〉 스마트이동체융합시스템공학부 교수가 부산에서 열린 '2023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제3회 용접의날 행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안 교수는 선박해양전공으로 선박에 적용되는 강재의 용접부 파괴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 특히 LNG운반선의 용접부 파괴안정성 향상을 위해 적용강재의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해왔다. /윤영기 기자 penfoot@

TV프로그램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버킷리스트(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볼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하늘의 인연(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우아한 제국(재)	30 930 MBC 뉴스 45 광주MBC 보다 스페셜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00 여순사건 10.19 제75주기 합동추념식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재)	00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00 광주MBC 보다 스페셜 15 꾸러기 식사교실(재) 45 다이노맨2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연인 파트2(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7인의 탈출(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별다방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우아한 제국 스페셜	55 2시 뉴스 외전	
2	00 KBS 뉴스 10 방과 후 초능력 40 브레드와 윌크의 세계여행 2 55 어린이동물티비			00 뉴스브리핑
3	25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5 불편해도 괜찮아(재)	00 KBS 뉴스타임 10 반지의 비밀일기 2(재) 30 TV 유치원	55 기분 좋은 날	
4	00 사사건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2023 전남 국제 수묵비엔날레 남도, 수묵으로 물들다(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스페셜	00 슈퍼트론 15 다이노 파워즈 2 30 놓친 예능 따라잡기	10 보통의 존재	00 SBS 오뉴스 50 전국체육대회 전야제기념 KBC 축하쇼
6	00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폐막식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05 본방을 보자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우아한 제국	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0 하늘의 인연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우당탕탕 패밀리	30 홍김동전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45 영화가 좋다 스페셜	00 시사토론 시사용광로	00 국민사형투표
10	00 다큐 인사이트 50 KBS 뉴스라인W	50 더 라이브	00 구해줘! 홈즈	2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1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50 아이 러브 스포츠	40 문화콘서트 난장	50 마이 로컬 텔레비전 스페셜
12	00 KBS 중계석	15 살림하는 남자들(재)		50 KBC-희망풍차 공동프로젝트 휴먼다큐 나눔 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07:00 허풍선이 미술쇼
07:15 시몽
07:30 엄마 까투리
07:45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곰끼와 처음 수학
08:50 레인보우 버블젬
09:05 그린조끼 구조대(재)
09:2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10:10 한국의 둘레길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2:10 명의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4:30 EBS 평생학교 1교시
15:15 EBS 평생학교 2교시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16:40 딩동댕 유치원(재)
17:00 페파 피그
17:10 오구오구 내 새끼(재)
17:20 애코의 요수리동요
17:25 허풍선이 미술쇼
17:40 곰끼와 처음 수학(재)
18:10 레인보우 버블젬
18:40 EBS 뉴스
19:00 한국의 둘레길
19:20 고향민국
19:50 숲이 그린 집
20:40 세계테마기행 〈인생의 쉼표 베트남 북부 -장인의 향기 응에안〉
21:30 한국기행 〈살아있네, 가을 4부 순희 씨의 가을 한 끼〉
21:55 귀하신 몸(재)
22:45 다큐멘터리K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9일 (음 9월 5일 庚戌)

☎ 010-9790-8237

子 36년생 길조가 보이니 세심하게 보라. 48년생 바른 생각은 복주머니를 만드는 셈이다. 60년생 번거롭더라도 자신이 직접 행함이 마땅하다. 72년생 옛것은 버리고 새것을 택하는 것이 훨씬 낫다. 84년생 앞만 보고 진행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96년생 전체적인 정황이 본인의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그냥 받아들이자. 행운의 숫자 : 12, 69

丑 37년생 사실부터 파악해 두고 보는 것이 급선무이다. 49년생 집착할수록 손해이니 빨리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61년생 간발의 차이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73년생 큰 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자. 85년생 실익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무리가 없겠다. 97년생 요행을 바라지 말고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03, 63

寅 38년생 감지된 실황을 무시한다면 큰일로 비화될 것이니라. 50년생 삼가는 마음으로 임하면 감천하리라. 62년생 큰 물에서 합류하게 되니 격동의 형세로다. 74년생 파도가 높으니 배를 띄우면 아니 되겠다. 86년생 지나간 것은 차치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신경 쓰자. 98년생 적극성을 띤다면 훌륭한 성과가 기대된다. 행운의 숫자 : 49, 56

卯 39년생 가까운 곳에 귀인이 있으니 몸을 낮춰 지혜를 구하라. 51년생 격돌의 현장에서 자생력이 드러날 것이다. 63년생 기회는 준비하고 있는 이의 것이다. 75년생 빈틈을 보인다면 타격을 입으리라. 87년생 기본적인 것이 미비한 상태라면 성과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 99년생 귀인과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06, 87

辰 40년생 예상치 못했던 특별한 길조가 보인다. 52년생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행동하는 이가 있다. 64년생 오해로 인한 시비가 나타날 수도 있다. 76년생 판국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리라. 88년생 결과보다는 과정이 훨씬 중요함을 인식하자. 00년생 근원적인 부분부터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34, 90

巳 41년생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여건이 조성되어 가리라. 53년생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난처한 입장이다. 65년생 계획을 잘 세워야 진행하는 과정이 흔들리지 않는다. 77년생 견인불발의 자세로 초지일관한다면 무난할 것이다. 89년생 치밀하지 않다면 의외로 새어 나가는 것이 많으리라. 01년생 확실히 하라. 행운의 숫자 : 09, 70

午 42년생 근본적인 것에 해답이 있다. 54년생 긍정적인 마인드와 결단성 있는 진행이 성사로 이끌 것이다. 66년생 사정을 잘 헤아려서 처리하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진다. 78년생 전문가를 만나야 속시원한 해결을 본다. 90년생 최종적인 선택을 해야 할 처지가 된다. 02년생 집중한다면 분명히 성취하게 되어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43, 73

未 43년생 오는 이 막지 말고 가는 이 잡지 말자. 55년생 진솔했을 때 더 설득력이 있는 법이다. 67년생 현재의 안일함에서 벗어나서 치열하고 치밀하게 살아 가야 활로가 트인다. 79년생 융통이 쉬워지면서 성사된다. 91년생 마음은 있지만 시간이나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문제다. 03년생 삼사일언한다면 신뢰가 쌓이리라. 행운의 숫자 : 25, 55

申 44년생 자세히 살펴본다면 미처 헤아리지 못한 허점들이 드러날 것이다. 56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끈기 있게 매달려야 할 때다. 68년생 면밀히 살펴본다면 여러 곳에서 손질해야 할 부분이 눈에 띌 것이다. 80년생 부드러운 논리가 오히려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92년생 진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04년생 약진의 발판이 되리라. 행운의 숫자 : 38, 79

酉 45년생 짐작하고 있던 바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다. 57년생 적극적이고 전면적으로 조처해야 할 때가 도래하였도다. 69년생 대동소이하니 조금도 신경 쓸 필요 없다. 81년생 더불어 논의한다면 훨씬 나은 답을 얻을 수 있다. 93년생 가급적 빨리 조처하는 것이 옳다. 05년생 내면의 실정에 충실함이 합당하다. 행운의 숫자 : 11, 50

戌 34년생 의심스럽다면 다시 살펴봐야만 할 것이다. 46년생 많이 늘어났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58년생 대다수의 목표를 성취하게 되는 길함이 보인다. 70년생 지켜보고 있노라면 한계가 드러날 것이다. 82년생 힘든 만큼에 비례해서 향후의 결실은 알찰 것이다. 94년생 외형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행운의 숫자 : 44, 85

亥 35년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불안감을 떨쳐버려도 된다. 47년생 즉시 특단의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옳다. 59년생 지금의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니 마음 놓고 함께하여도 무방하다. 71년생 최선을 다한다면 바라던 일이 꼭 이루어질 것이니라. 83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자. 95년생 느긋하게 임해도 될 국면이다. 행운의 숫자 : 28, 57